

고창군, 농생명 산업 활성화 '총력전'

郡, 농업부서 워크숍 개최
공무원·농민 등 80여명 참석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논의
유기상 군수 농생명산업 특강도



지난 1일 상하농원에서 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부서 워크숍이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농생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일 지역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부서 워크숍을 상하농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워크숍을 통해 담당부서인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간 전략회의는 물론 농산물 마케팅 회의를 열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을 논의했다. 또 농산물 브랜드 전략, 복분자와 지역특화작물 육성방안,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주요 농정현안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복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양개량 방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활용한 통합 브랜드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창 상하농원과 함께하는 마케팅회

의'에서는 고창 상하농원과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매입 및 판매방안에 대해 상하농원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추진했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특강을 통해 군정의 발전방향과 농생명식품산업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유 군수는 "농업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고창농업 발전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이 합심해 우수한 고창의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농정현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농업 발전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하반기에도 시행 추경 2억4100여만원 편성

정읍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진행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진행하기 위해 1회 추경에 2억4100여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으로 정읍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

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대상 차량들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차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시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선정 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 정상가동 여부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 시에 제출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축사 악취 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평가회

익산시가 축사 악취 저감에 속도를 올린다. 익산시는 지난 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방안과 기술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는 냄새저감 투입기술·효과, 돈사 내 분진·냄새 물질 분석에 대한 현황 발표,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현황 공유, 종합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 돈사 외부에 바이오커튼과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미생물제제를 급여하고 살포하는 방법을 현장에 적용한 농장에 대한 중간 평가도 이뤄졌다. 익산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위해 양

돈 5개 농장을 선정하고 컨설팅과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스템, 고액원심분리기, 액비저장조 미세폭기장치, 퇴비장·액비장 밀폐, 미생물제제 지원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을 지원했다. 익산농기센터 관계자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속 시범사업으로 5개 농장에 투입된 기술들은 철저히 비교 분석 및 사후 평가해 축사 악취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좋은 모델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수 2020년엔 20만선 무너진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수가 2년 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21만819명이던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내년도 20만3863명으로 줄고 2020년에는 19만8619명으로 감소한다. 20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2008년도 29만5114명을 기록한 이후 12년만이다. 이어 2021년 19만5187명, 2022년 19만1124명으로 19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18만6467명으로 19만명 선도 붕괴한다. 2023년까지 5년 동안 감소하는 학생 수는 2만4352명(11.6%)에 이른다. 이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해 현재 학급당 29~30명인 학생 수를 2023년에는 26~28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도, 내년 2월까지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전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병행성 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사군에 27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틀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

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한 달 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안심하도록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지역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전남도는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총 2000만원(10만~100만원 운누리상품권) 상당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12월이며,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언제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의 관문 '호남제일문' 3억원 들여 새롭게 단장

시, 단청·바닥판 등 공사 전을 위해 보수가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000만원을 투입해 교대 및 교각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올 연말 안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경관조명 설치와 하부바닥 단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착공에 들어가 6월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화재 단청업체에 자문한 결과 상부 전체 도색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하부 바닥 판의 경우 균열을 보수한 후 단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시, 단청·바닥판 등 공사 전을 위해 보수가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000만원을 투입해 교대 및 교각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올 연말 안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경관조명 설치와 하부바닥 단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착공에 들어가 6월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화재 단청업체에 자문한 결과 상부 전체 도색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하부 바닥 판의 경우 균열을 보수한 후 단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30, 16
사범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회	유아교육과 8, 2
예능	복지상담융합학부(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위교육상담학 전공) 31, 3
	음악학부(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8. 9. 10(월) ~ 14(금), 전형일: 2018. 9. 28(금)
-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2019. 1. 10(목)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